



# numbers

vol. 332 | 2026.4.28.

한국인의 결혼과 이혼  
지난 10년 새,  
황혼이혼 무려 50% 증가!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한국의 최상위 1% 가구 현황
2. 2025 국민 기후환경의식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 지난 10년 새, 황혼이혼 무려 50% 증가!

최근 통계(국가데이터처, 2025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혼인 건수는 2022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2025년 24만 건에 이르렀고, 이혼은 같은 기간 감소 흐름을 보이며 8만 건대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이면에는 결혼/이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대의 절반 이상(57%)이 '자녀 없는 결혼'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30년 이상 부부의 황혼이혼은 무려 50% 증가했다. 결혼과 가족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넘버즈 332호>에서는 혼인과 이혼의 변화 양상,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과 비혼 이유, 그리고 실제 부부들의 관계 만족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세대별로 달라지는 결혼관과 관계 만족도 속에 드러나는 부부 관계의 현실을 데이터 기반으로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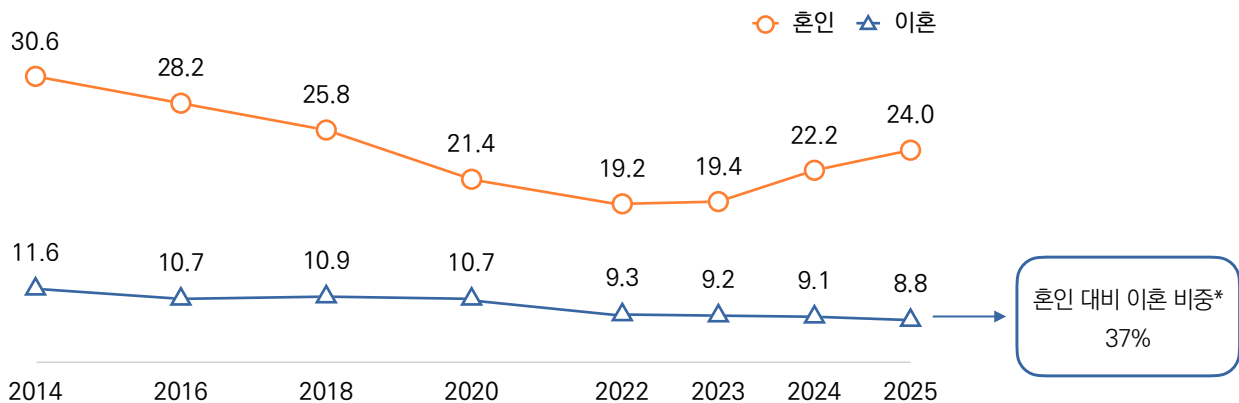
이번 호가 오늘날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부부들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교회 공동체가 그들의 삶에 어떻게 실질적인 위로와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3년 새, 결혼은 늘고 이혼은 줄었다!

- 최근 10년간 혼인·이혼 추이를 보면 2014년부터 지속적 하락세를 보이던 혼인 건수가 2023년부터 상승세로 전환, 2025년에는 24만 건을 기록했다.
- 이혼 건수는 2014년 11.6만 건에서 2022년 9.3만 건으로 완만한 하향세를 이어가다, 2025년(8.8만 건)에는 8만 건대까지 떨어졌다.
- 2022년 이래로 결혼은 늘고, 이혼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혼인·이혼 건수 추이 (일반국민, 만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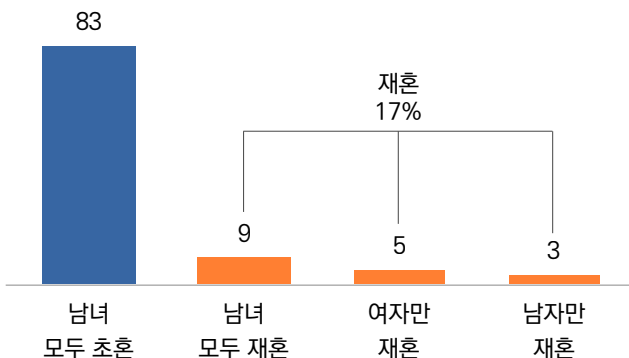
※출처 :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025 혼인·이혼 통계, 2026.03.19.

\*이혼 건수/혼인 건수×100

## 전체 혼인 중 재혼 비중, 6명 중 1명꼴(17%)!

- 혼인 종류별 구성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초혼'이 83%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고, '남녀 모두 재혼' 9%, '여자만 재혼' 5%, '남자만 재혼' 3%로 전체 혼인 중 재혼은 6명 중 1명꼴(17%)이었다.

[그림] 혼인 종류별 구성 (2025, 종류별, 일반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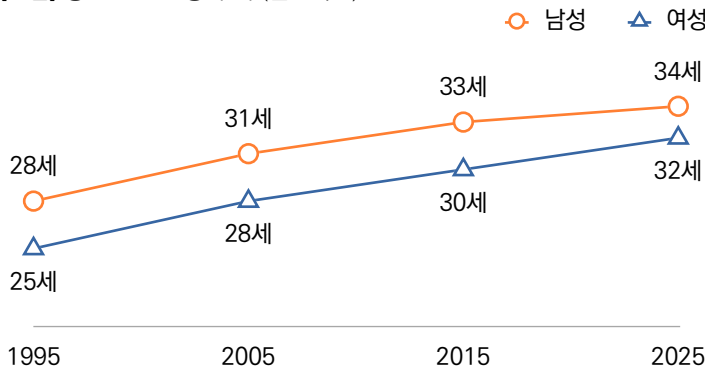


※출처 :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025 혼인·이혼 통계, 2026.03.19.

## 평균 초혼 연령, 한 세대(30년) 사이 6~7세 높아져!

- 한국인의 평균 혼인 연령은 2025년 초혼 기준 남성 34세, 여성 32세로, 한 세대(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남성(28세), 여성 (25세)이 각각 6,7세 높아졌다.

[그림] 평균 초혼 연령 추이 (일반국민)



※출처 :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025 혼인·이혼 통계, 2026.0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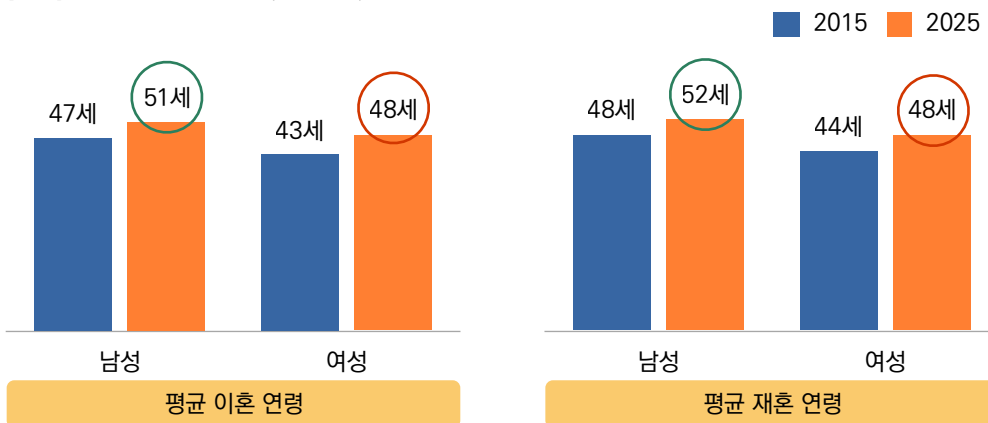
## 02

### [이혼 현황]

## 평균 이혼 연령, 재혼 연령대와 비슷해!

-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 51세, 여성 48세로 나타났으며, 남녀 모두 이혼을 결심하는 연령대와 새로운(재혼) 배우자를 만나는 연령대가 거의 겹치는 점이 흥미롭다.

[그림] 평균 이혼·재혼 연령 (일반국민)



※출처 :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025 혼인·이혼 통계, 2026.03.19.

## 지난 10년 새, 결혼 30년 이상 부부 중 황혼이혼 무려 50% 증가!

- 혼인지속기간별 이혼 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이혼은 10년 새 19% 감소했으나, 30년 이상 이혼만 유일하게 무려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이혼 건수 중 30년 이상 이혼 건수 비율을 보면, 2015년 10%에서 2025년 18%로 황혼이혼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혼인지속기간별 이혼 건수 (천 건)

	2015	2025	증감률
계	109.2	88.1	-19%
4년 이하	24.7	14.4	-42%
5~9년	20.8	15.2	-27%
10~14년	14.9	14.0	-6%
15~19년	16.2	12.2	-25%
20~24년	13.4	9.0	-33%
25~29년	8.8	7.7	-13%
<b>30년 이상</b>	<b>10.4</b> <b>(10%)*</b>	<b>15.6</b> <b>(18%)*</b>	<b>50%</b>

※출처 :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025 혼인·이혼 통계, 2026.03.19.

\* ( )안은 전체 이혼 건수 중 30년 이상 이혼 건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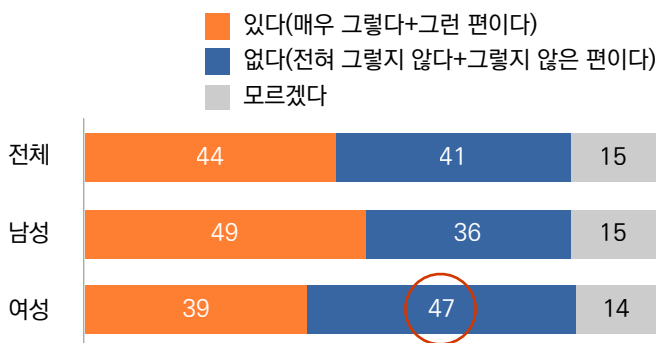
## 03

### [결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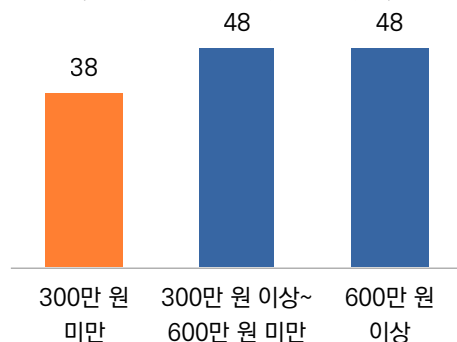
## 미혼 여성, 절반 가까이 '결혼 안하겠다'!

-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을 살펴본 결과, 미혼 응답자 중 '결혼 의향이 있는' 사람은 44%로 절반에 못 미쳤다.
- 성별 결혼 의향에는 뚜렷한 격차를 보였는데, 남성의 '결혼 의향 있음' 비율은 49%로 '의향 없음'(36%)보다 높았으나, 여성은 '결혼 의향 없음' 비율(47%)이 절반 가까이로 '의향 있음'(39%)을 앞질렀다.
- 월평균 가구소득별로 보면 '300만 원 미만'(38%)과 '300만 원 이상'(48%) 간 '결혼 의향 있음' 비율이 10%p가량 차이를 보였다.

[그림]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 (2025, N=308, %)



[그림] 월평균 가구소득별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 (2025, '있다' 비율\*, N=3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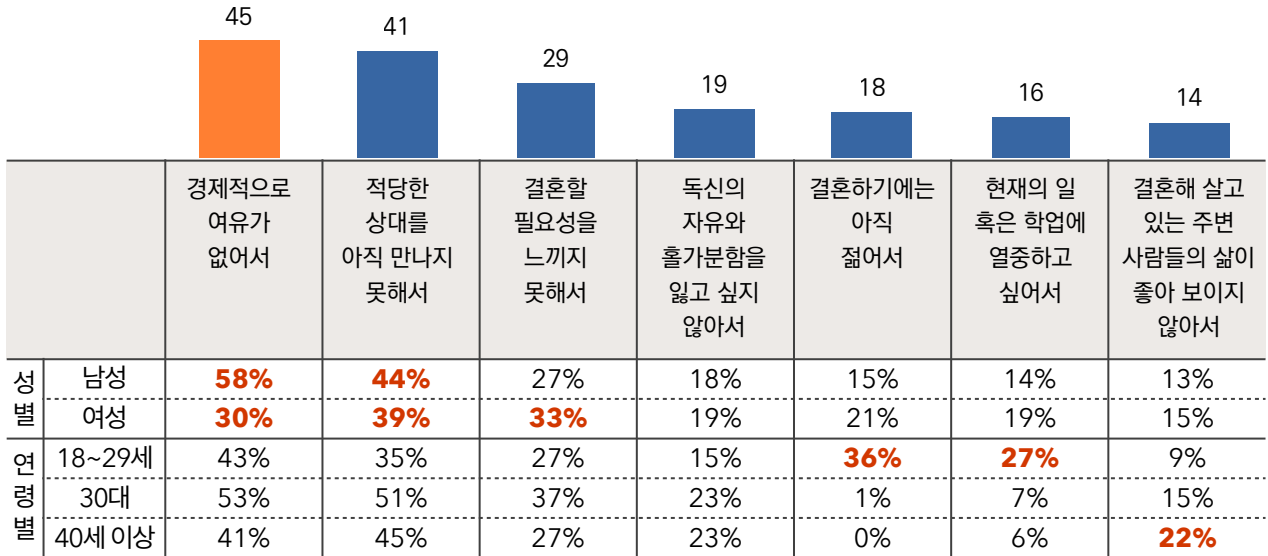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5 결혼인식조사] 미혼자의 결혼 의향, 2025.06.23.(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조사, 2025.03.21.~03.24.)

\*4점 척도

## 현재 결혼하지 않은 이유, '경제적 여유도, 적당한 상대도 없어서!'

- 현재 미혼자 대상으로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묻은 결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45%)와 '적당한 상대를 아직 만나지 못해서'(4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20대에서 '결혼하기에는 아직 젊어서'(36%)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40세 이상에서는 '결혼해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삶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22%)가 다른 연령대 대비 많이 언급됐다.

[그림] 결혼하지 않은 이유 (미혼, 2025, 상위 7개, 복수응답, N=3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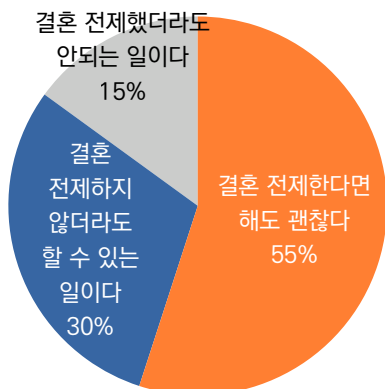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5 결혼인식조사] 미혼자의 결혼 의향, 2025.06.23.(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조사, 2025.03.21.~0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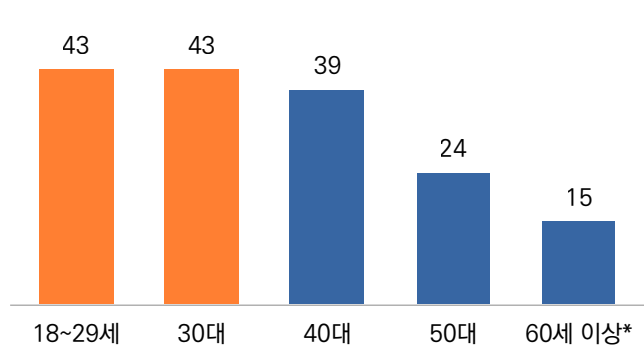
## 국민의 85%, 결혼 전 동거할 수 있다!

- 결혼 전 동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결혼을 전제한다면 해도 괜찮다'는 응답은 55%, '결혼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30%로, 국민의 85%가 결혼 전 동거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결혼을 전제했더라도 동거는 안 된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 한편 '결혼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동거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30대는 각각 43%에 달했으나, 60세 이상에서는 15%로 나타나 세대 간 뚜렷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그림] 결혼 전 동거에 대한 인식 (2025, N=1000)



[그림] 연령별 '결혼 전제하지 않더라도 동거할 수 있다' 응답 비율 (2025, N=3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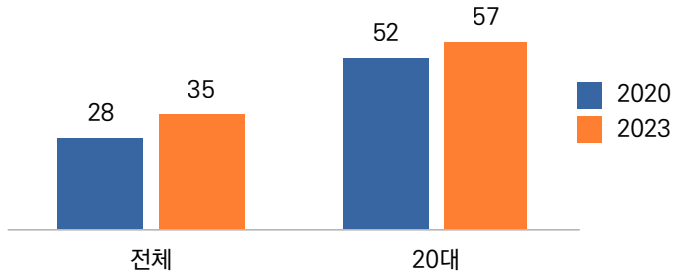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5 결혼인식조사] 결혼 문화의 변화, 2025.06.17.(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조사, 2025.03.21.~03.24.) 2021~2024년 각 연도별 결혼인식조사 링크 참조 (<https://hrcopinion.co.kr/archives/33230>)

\*60대(N=177)와 70세 이상(N=149)의 해당 항목 동의율을 연령대 사례수를 반영하여 60세 이상으로 재계산함.

## 20대 절반 이상(57%), ‘자녀 없는 결혼’에 동의!

- ‘결혼하고 자녀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응답률은 20대에서 57%로 나타나, 전체 평균(35%)을 크게 웃돌았다. 20대 청년의 절반 이상은 결혼 후 무자녀 선택을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그림] ‘결혼하고 자녀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긍정률  
(‘전적으로+약간 동의’ 비율\*, %)



※2020년 출처 : 성평등가족부, 202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 2021.05.(전국 10,997가구의 만12세 이상 모든 가구원, 면접 및 유치조사 병행, 20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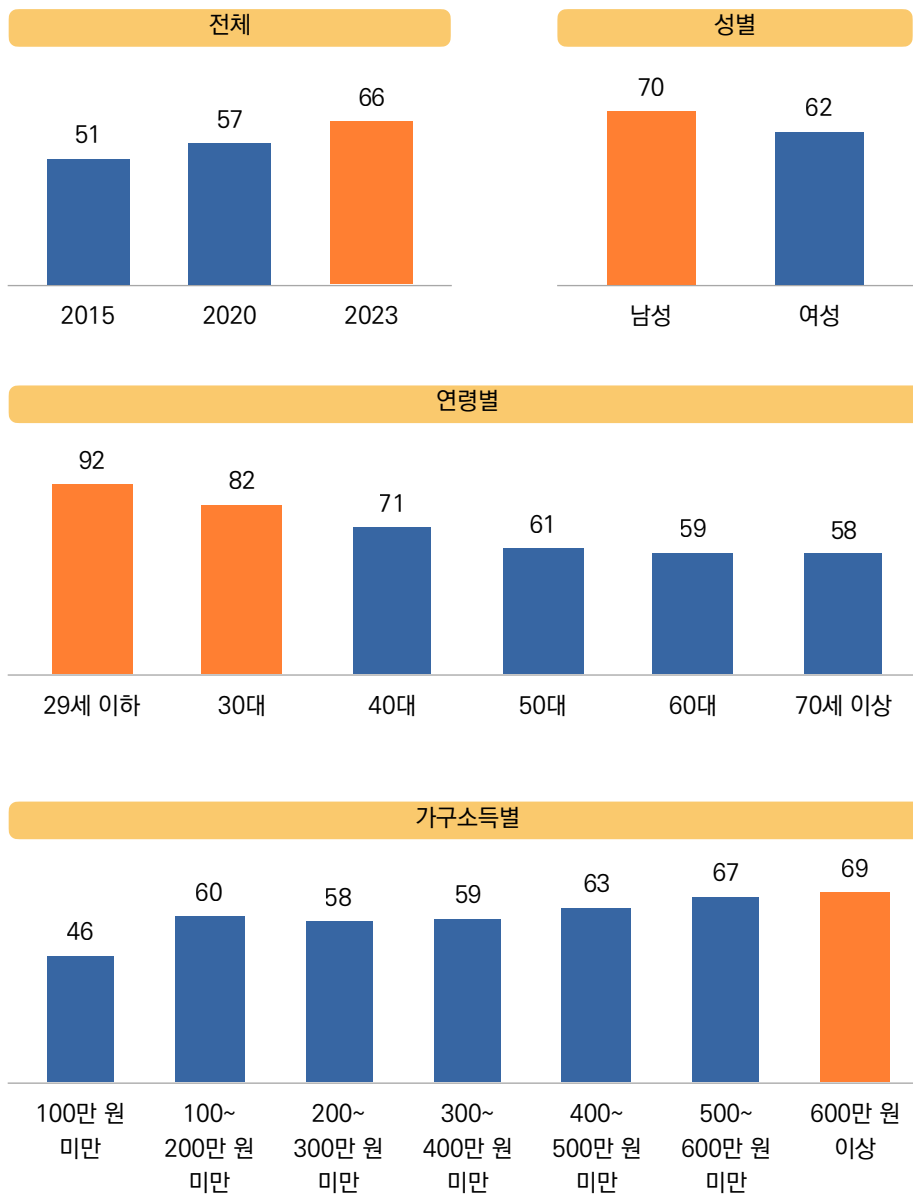
2023년 출처 : 성평등가족부,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 2024.04.(전국 12,044가구의 만 12세 이상 모든 가구원, 면접조사, 2023.06.~07.)

\*5점 척도

## 배우자 만족도, '점을수록', '소득 높을수록' 상승!

- 배우자와의 전반적 관계 만족도는 2023년 기준 66%로, 2015년 51%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한편 배우자 관계 '만족' 비율은 '남성', '30대 이하' 젊은 세대, 가구소득 '월 600만 원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배우자 관계 만족도 ('매우+약간 만족' 비율\*, %)



※2020년 출처: 성평등가족부, 202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 2021.05.(전국 1,997가구의 만12세 이상 모든 가구원, 면접 및 유치조사 병행, 20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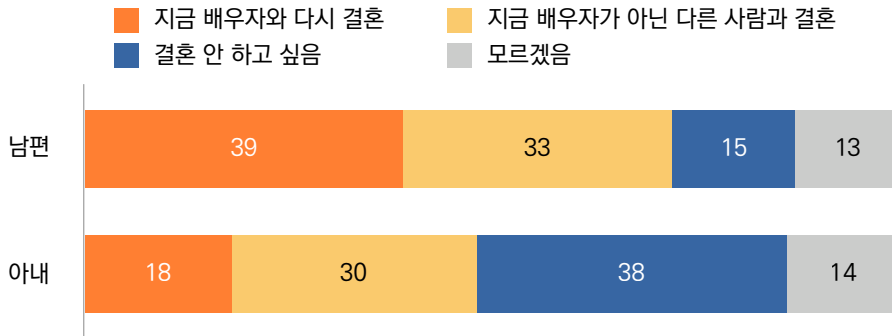
2023년 출처: 성평등가족부,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 2024.04.(전국 12044가구의 만 12세 이상 가구원, 면접조사, 2023.06.-07.)

\*5점 척도

##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배우자와 결혼? 남편 39%, 아내 18!

-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할지'를 묻는 질문에 남편은 39%가 '지금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고 싶다'고 답한 반면, 아내는 '지금의 남편과 다시 결혼하고 싶다'는 비율이 18%에 불과했다.
- 한편 아내의 1위 응답은 '결혼을 안 하고 싶다'(38%)였다.

[그림]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할까? (2025, 현재 배우자가 있는 사람, N=57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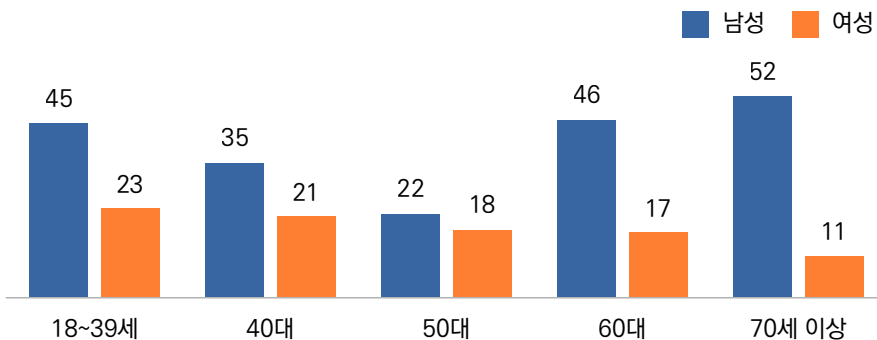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5 결혼인식조사] 미혼자의 결혼 의향, 2025.06.23.(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조사, 2025.03.21.~03.24.)

## 50대 남성, '지금 배우자와 다시 결혼' 비율 최저!

- '지금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고 싶다' 비율은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가운데, 남성은 70세 이상(52%)에서, 여성은 18~39세(23%)에서 '지금 배우자 다시 선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특히 주목할 지점은 50대이다. 50대 남성의 현 배우자 재선택 비율은 22%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또한, 다른 연령대에서는 남녀 간 인식 격차가 최소 14%p에서 최대 41%p까지 벌어졌지만, 50대 남녀 차이는 단 4%p에 불과했다.

[그림] 성·연령별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고 싶다' 비율 (2025, 현재 배우자가 있는 사람, N=575, %)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5 결혼인식조사] 미혼자의 결혼 의향, 2025.06.23.(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조사, 2025.03.21.~03.24.)

## 이번호 요약

### 1. 지난 3년 새, 결혼은 늘고 이혼은 줄었다!

최근 10년간 혼인·이혼 추이를 보면 2014년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혼인 건수는 2023년부터 상승세로 바뀌어, 2025년에는 24만 건을 기록했고, 이혼 건수는 2013년 11.6만 건에서 2025년(8.8만 건)에는 8만 건대까지 떨어졌다.

### 2. 50대 남성, '지금 배우자와 다시 결혼' 비율 최저!

다시 태어나도 지금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주목할 지점은 50대인데, 50대 남성의 현 배우자 재선택 비율은 22%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 3. 지난 10년 새, 결혼 30년 이상 부부 중 황혼이혼은 무려 50% 증가!

혼인지속기간별 이혼 건수를 보면 전체 이혼 건수는 10년 새 19% 감소했으나, 30년 이상 이혼만 유일하게 무려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팀 켈러, 결혼을 말하다 (두란노서원, 팀 켈러 저/최종훈 역)

## 관련 성경 구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7절)

## 목회 적용점

이번 <넘버즈 332호>가 보여주는 통계는 우리 사회의 결혼과 가족 문화가 급격한 전환점에 서 있음을 알려준다. 혼인 건수는 반등하고 이혼은 줄어드는 외형적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한 부부들 사이에서 황혼이혼이 50%나 급증하는 뚜렷한 명암이 공존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서 보면 '다시 태어나도 지금 배우자와 결혼할지'를 묻는 질문에 50대 남성의 배우자 재선택 비율은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는데, 이는 사회적으로는 가장 오래 다닌 직장을 나와서 직업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자녀들은 어느 정도 성장한 50대라는 인생의 변곡점에서 서로 정서적 무관심이나 갈등이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 시기의 문제는 사실상 30~40대 부부 문제나 갈등이 누적된 결과임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다면 교회는 '부부들을 위한 교육'(대화법, 자녀/배우자와의 갈등대처기술 등)과 '기혼자 멘토-멘티 그룹 구성'을 시작할 수 있다. 자녀 연령/부부 연령을 고려한 생애주기에 맞는 부부 교육을 제공하고, 선배 부부들의 삶과 지혜를 공유하며, 서로를 독려하는 '안전한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많은 교회에서 부부 소그룹을 통해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보고가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서로 간 진솔한 대화와 다른 부부의 조언이 부부 갈등이 회복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 중심의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데 특별한 돌봄과 관심을 기울이기 바란다.

#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한국의 최상위 1% 가구 현황
2. 2025 국민 기후환경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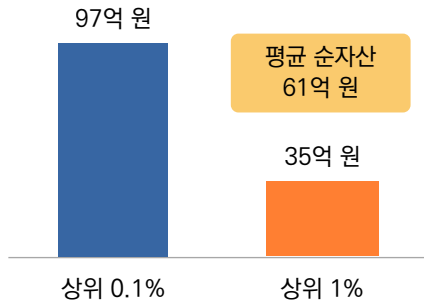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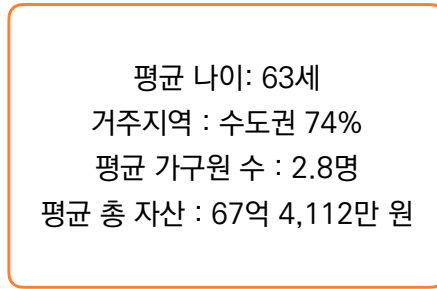
### 한국의 최상위 1% 부자 가구, 최소 35억 원 이상 순자산 보유!

- 우리나라 최상위 1% 가구의 모습을 '상위 1% 부자가구 보고서'(NH투자증권)를 통해 들여다본다. 2025년 기준 상위 소득 순위별 '순자산 커트라인'을 살펴본 결과, 상위 0.1%는 97억 원, 상위 1%는 35억이었다.
- 상위 1% 가구의 기본 현황을 보면 가구주의 평균 나이는 63세로, 이들 중 74%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평균 총 자산은 약 67억 원 수준이었다.

[그림] 상위 소득 순위별 보유 순자산 커트라인 (2025)



[그림] 상위 1% 가구 현황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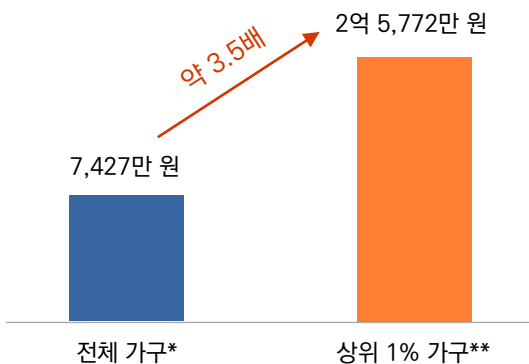


※출처: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상위 1% 부자가구 보고서, 2026.04.15.

### 상위 1% 가구의 연 평균 소득, 전체 가구 평균보다 3.5배 높아!

- 상위 1% 가구의 연 평균 소득은 2억 5,772만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연 평균 소득(7,427만 원)의 3.5배가량 높았다.

[그림] 상위 1% 가구 vs 전체 가구 연 평균 소득 비교 (2025)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가구소득의 규모), 2025.1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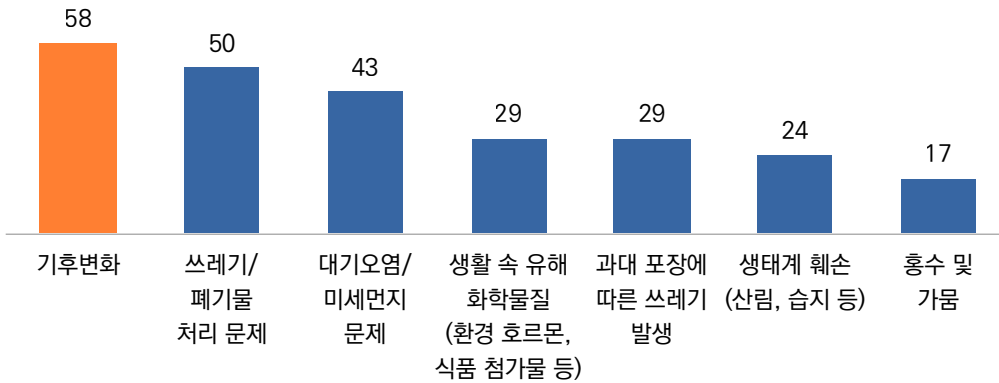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상위 1% 부자가구 보고서, 2026.04.15.



### 우리 국민 절반 이상(58%), 가장 시급한 환경문제로 ‘기후변화’ 꼽아!

- 최근 ‘한국환경연구원’에서 ‘2025 국민환경의식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해당 자료를 통해 우리 국민의 환경 의식을 살펴본다. 먼저 우리 국민이 가장 시급한 환경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기후변화’(58%)였으며, ‘쓰레기/폐기물 처리 문제’(50%), ‘대기오염/미세먼지 문제’(43%)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림] 가장 시급한 환경문제 (2025, 1+2+3순위, 상위 7개, N=3,0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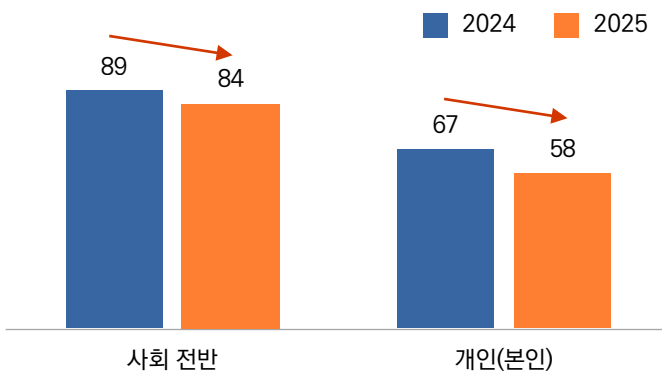


※출처 : 한국환경연구원, 2025 국민환경의식조사 보고서, 2025.12.31.

### 기후변화 심각성 인식, 전년보다 감소!

-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묻은 결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2025년 84%로 전년 (89%)보다 5%p 감소했고,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2024년 67%에서 2025년 58%로 약 10%p 낮아졌다.
- 이는 우리 국민의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지난 1년 사이 다소 약화됐음을 보여준다.

[그림] 기후변화의 심각성 (2025, ‘매우 심각+심각한 편’ 비율\*, N=3,008, %)



※출처 : 한국환경연구원, 2025 국민환경의식조사 보고서, 2025.12.31.

\*5점 척도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61호 \(2026년 4월 4주\)](#)

- 조국 · 한동훈 국회의원재보궐선거 출마, 경제 전망

###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79호 \(2026년 4월 4주\)](#)

- 국정운영 평가, 지방선거 성격, 물가상승 부담, 고유가 피해지원금 평가

## 사회 일반

### [집 앞 10분 거리에 카페·공원 있다…집값 흐드는 ‘슬리퍼 생활권’](#)

한겨레\_2026.4.24.

### [성형외과 아니다…한해 외국인 131만명 몰린 韓병원 정체](#)

중앙일보\_2026.4.24.

### [연명의료 유보-중단, 8년만에 50만명 넘어](#)

동아일보\_2026.4.27.

### [결국 부모 찬스? 서울에 집산 30대, 증여·상속으로 1조 조달](#)

연합뉴스\_2026.4.26.

### [\[주변국 호감도 - 2026년 4월\]](#)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6.4.21.

### [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6.4.21.

## 아동 · 청소년 · 청년

### [영유아는 가구에서 떨어지고 고령자는 바닥에서 미끄러졌다](#)

데이터숨\_2026.4.27.

### [매년 5만명 학업 중단…“한번 위기 겪으면 빠르게 악화, 조기 개입을”](#)

한겨레\_2026.4.23.

### [학교 밖 청소년 5명 중 1명 최근 자살 생각…우울감 경험 31%](#)

연합뉴스\_2026.4.26.

### [축구·생파·소풍 다 금지…학창시절 ‘추억’이 사라진다](#)

중앙일보\_2026.4.25.

### [‘삼전·하늬 직행 티켓’…연고대 반도체과 합격선 역대 최고](#)

국민일보\_2026.4.26.

### [고1 평균 키 男 173·女 161.3cm…비만 늘고 시력 나빠졌다](#)

연합뉴스\_2026.4.28.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경제 · 기업

[“입사지원서 내봤자 야, 신입은 뽑지도 않아”…구직단념자 20대가 전체 1위](#)

매일경제\_2026.4.27.

[돌봄수요 증가에 방문복지 취업자 비중 1위…농업·건설업은 ↓](#)

연합뉴스\_2026.4.23.

## 국제 · 환경

[中 "청년층 '결혼·연애관' 지도…주택·소비 연계 출산 지원"](#)

연합뉴스\_2026.4.23.

[인플레이션은 감수한다, 사나에노믹스의 ‘고압경제’ 실험 \[더롱뷰\]](#)

중앙일보\_2026.4.27.

## 건강

[‘오전 낮잠’ 잤은 노인, 사망률 30% 높다…낮잠이 보내는 신호](#)

동아일보\_2026.4.26.

[매일 3~5잔 마시던 커피, 2주 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동아일보\_2026.4.26.

[빈혈, 단순 피로 아니다…“치매 위험 최대 66% 높여”](#)

동아일보\_2026.4.23.

[80대에도 50대 기억력…‘슈퍼 에이저’의 뇌 조건](#)

동아일보\_2026.4.25.

## 기독교 · 종교

[스마트폰·맛집 탐방·쇼핑 못 잃는데…도파민 중독일까](#)

국민일보\_2026.4.22.

## 트렌드

[“90%가 청년 손님?”…요즘 2030 숙툼방으로 퇴근한다 \[트렌디킹\]](#)

동아일보\_2026.4.22.

# 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윤성훈

##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넥스트목회교육원,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퓨처처치연구소(FCI),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교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①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②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 없는 분은 아래 계좌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목회데이터연구소 출간 도서

※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영민 간사



### 「한국교회 트렌드 2026」 (희망친구 기아대책 공동 출간)

2026년도 예상되는 한국교회 이슈와 트렌드 10가지를 주제로 선정하였는데, 이 책이 목회 전략을 수립하는데 올바른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 성도를 총 1,320명 조사하여 각각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 5대 영역별로 성도, 목회자, 청소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Upward**

건강한 교회의 맥박  
예배

**Forward**

변화된 삶을 위한 양식  
교육

**Inward**

그리스도의 몸  
친교

**Outward**

예수의 섬김  
봉사

**Onward**

지속되어야 할 대위임령  
선교

책 구입 안내



### 「2025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출간(비매품)

- 2025년 작년 한해 동안의 <넘버즈>를 모아 엮은, 「2025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VOL.7」을 출간하였습니다. 책 제작을 위해 재정 후원을 해주신 한소망교회(원로목사 류영모, 위임목사 최봉규)에 감사를 드립니다.
- 후원자에게 책을 발송합니다. 책을 받지 못하신 분은 연구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22-0726)

## 목회데이터연구소 공지



### 소그룹 리더 양성 퍼실리테이션 과정

라잇나우미디어에서 목회자님을 위한 소그룹 솔루션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 1) 일정 : 2026년 4월 30일(목) 11:00~16:00
- 2) 장소 : 비온드처치(구로동로 47길 6, 3층)
- 3) 대상 : 소그룹 리빌딩을 원하시는 목회자님, 기관의 리더님
- 4) 강사 : 우명훈소장(세바시연사 코치)
- 5) 신청/문의 : 1533-7104

[신청 링크](#)



### KCMC 목회 코칭 & 멘토링 클래스 [목회 코멘트]

CTS기독교TV의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KCMC)가 목회의 막막함을 마주하신 분들을 위한 목회 코칭 & 멘토링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 1) 일 정 : 4월 ~ 7월 총 4회 (매월 네 번째 화요일)
- 2) 장 소 : CTS 컨벤션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
- 3) 참가비 : 15만원 (과정 우수 수료자 선정하여 장충교회에서 장학금 수여 예정)
- 4) 문 의 : 02-6333-0088 (CTS 미래교회연구소)

[자세히 보기 및 신청 링크](#)

Addr.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 기독교TV멀티미디어센터 9층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